

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을 중심으로

서 광 국*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인 요인 및 탈수급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수집된 DB 중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자료와 희망리본서비스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희망리본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 I 에서 탈수급 성공요인으로 주소득원 여부, 질병유무, 자격증소지여부, 학력, 배우자유무, 취·창업여부, 현물지원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여부, 사회서비스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요인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1:1 사례관리 측면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요인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요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7월에 실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과 차상위층에 대한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I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성과확인과 제시를 위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주요어: 자산형성사업,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사업 I, 희망리본서비스

I. 서론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늘어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그동안 확장급여 방식의 수급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빈곤층의 행태변화 및 탈빈곤을 위해 단순히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은 정부지원의 수급탈피와 빈곤탈출 효과에 있어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차 저임금 노동시장의 저숙련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고임금 노동시장의 고숙련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또한 생활위기로 내몰리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확대 등의 금융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은¹⁾ 투자할 자원 축적의 필요성 강조와 일부 소득분위 계층에 자산이 집중되는 퇴행적 사회정책을 개선하고 조기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공감대는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에서 벗어나 자산축적정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와 정책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축적정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정책으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외연확대를 위한 관심과 저축프로그램의 결합으로 금융과 복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이미 소득보장과 자산형성지원 정책혼합(Policy Mix)의 기초는 이미 미국에서 2000년 이후 급속히 검토되었고 실행된 바 있다.²⁾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경험에 기대어,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결과를 필두로 자산형성지원 사회정책이 빈곤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시대에 맞춘 생산성 중심의 사회정책이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시장 개입정책을 통해 시장을 길들이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일정한 한계 내에 제한시키려 하는 우리사회의 사회정책 개혁 움직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의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서울시와 중앙정부로 하여금 빈곤문제 해결에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급격한 복지수요 확장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가구의 안정성과 발전이 각광받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향후 빈곤층의

1) 국제통화기금(IMF, 2016.3)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95년 29%에서 '13년 45%로 급증, 아시아 2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하며 가장 큰 불평등의 원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확대를 원인으로 제시함. 이러한 소득불평등 확대 추세 속에서 특히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법적 구제 제도 신청건수도 '02년에는 2천 건 수준에서 '16년에는 140천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2) 2000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의 처음계좌(First account), 은퇴저축계좌(retirement saving account, RSA), 부시대통령의 개인발달 계좌제안(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고어대통령 후보의 은퇴 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plus account) 제안들이 대표적임. 다만 IDA사업은 미국IOWA주에서 1993년 최초로 법률을 제정하여 활성화됨.

탈빈곤 유인효과 및 유인행동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³⁾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본격적인 사업형태로 도입되어 확대 추진되고 있다. '10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 을 시작한 후 '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14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가입대상의 확대 뿐 아니라 각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하였다.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은 2007년 12월부터 100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0차에 걸쳐 연인원 15,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017)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은 38,000가구,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의 경우 44,000가구, 내일키움통장의 경우는 15,000명을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 2017a).

이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참여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 자활사업 평균 탈수급율('15년 기준, 21.7%)과 비교했을 때, 탈수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⁴⁾ 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7b).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가구(탈수급 해지)의 평균 해지율은 67.6%로 매우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능력이 낮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성과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당 만기연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의 탈수급율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더라도 희망키움통장 만기해지가구의 탈수급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볼 때,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서 중요한 소득의 보완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탈빈곤'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단순한 참여자 규모, 참여실태 그리고 탈수급율 정도로만 보고된 선행연구만을 토대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빈곤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또는 해소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참여자의 탈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 및 진입장벽요인을 파악하여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향후 탈수급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1993)사업 도입으로 미연방정부와 주정부는 30개가 넘는 IDA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신용공여가 가장 현실화된 소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반면,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적 신용공여보다 비용과 리스크가 모두 낮은 것으로 제시함(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21권 5호 10~11).

4)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수급자 중 탈수급한자의 비율('15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를 유인하는 요소와 이러한 요소들로 하여금 참여자의 탈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요인들로 하여금 향후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성공적 복지개입요소, 참여자별 맞춤형 사례관리지원강조 등을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계방안 마련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도입한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축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물적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희망키움통장 I의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희망키움통장 I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탈수급 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정부지원금 월 평균 36만원~최대 50만원, '17년 기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참여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저축액과 민간매칭금을 1:1로 매칭하고 있다.⁵⁾ 또한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은 2010년 1만 가구를 시작으로, 2011년 4천 가구, 2012년 3천 가구, 2013년 9천 가구, 2014년 5천2백 가구, 2015년 2천 6백 가구가 가입 중이다. 누적기준으로는 약 3만 4천 8백 가구가 가입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정책효과 및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참여기간(3년)동

5) 3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그리고 정부의 지원액 월 43만원에 더하여 민간의 매칭지원액인 월 10만원으로 할 경우 최대 3년간 약 2,400만원의 금액을 수령함.

안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유지여부, 참여기간 종료 후 탈수급에 성공하거나 탈수급을 선택하여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해당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성과로는 희망키움통장 I 사업에 참여하여 탈수급성공 및 적립금수령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본다면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정책효과 및 성과를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통장사업 참여 후 탈수급성공자에 대한 추적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 가입 가구 중 3년 도래 만기 해지 가구의 평균 탈수급 해지율은 67.6%로, 현재 유예기간 등 해지 진행 중인 가구를 고려하면 7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까지 포괄하는 자활사업의 평균 탈수급율이 '15년 기준 21.7%'('17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지자체 교육 내부자료) 보건복지부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자산형성사업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당 만기연도를 기준으로 탈수급율을 비교하여도 3배 이상의 높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탈수급 이후에도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탈수급하여 빈곤에 재진입하게 되는 경향성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저소득층 자산형성 도입 및 사업성과 관련 선행연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도입 및 자산형성 사업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선행연구는 제도·정책적 연구, 자산빈곤 및 자산형성구축 과정에 대한 연구, 자산형성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계량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연구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도한 국가 중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시범사업은 마이클 쉐라든(Michael Sherraden)교수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쉐라든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 자산형성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주장했다.

첫째, 자산형성정책은 소득보조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두 정책 모두 중요하다. 둘째,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정책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립하는 것이 쉽다. 셋째, 통합적 자산기반정책의 비전은 보편적(모든 사람을 포용), 누진적(빈곤층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 평생지속(출생시부터 시작) 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자산형성 정책 설계시 주

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자산형성의 사용처가 교육, 주택, 사업, 안전 등의 사회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된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을 선행 구축하여야 한다. 웨라든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IDA 사업에 이어 보편적 아동발달계좌(CDA)로 이어지는 생애기반형 통합적 자산기반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Sherraden et al., 2016).

다음으로 자산빈곤이 또 다른 빈곤의 주요원인임을 인식하고 자산형성의 효과측면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김경아·강성호, 2008; 남상호·권순형, 2008; 반정호, 2006, 강성민·유태균, 2009; 유태균·강성민·정찬미, 2014:).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제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백인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저축액등을 나타남과 동시에 경제적 성과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rlely et al. 2005; Grinstein-weiss et al, 2008; Han and Sherraden, 2009). 또한 저소득층의 가구원 수와 아동양육여부도 자산축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는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소득에 비해 소비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저축액이 낮아지게 된다. 동시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은 무자녀 가구보다 장기적으로 강력한 자산형성의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이나 교육비를 위한 저축 등의 예방적 동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축액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Loibi et al., 2010). 물론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여전히 공공부조제도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적립액에 대한 사용용도 제한이 개인의 저축행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Sherraden & Schreiner and Beverley, 2003; Sherraden & Schreiner, 2007).

둘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산형성의 설계과정 내용 중 매칭율이 높을수록, 월저축 목표액이 높을수록, 저축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재정교육시간이 많을수록 저축액이 많아지는 결과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Sherraden, 2007; Schreiner & Sherraden, 2007; Sherraden, 2008; Sherraden, 2010). 또한 최근 미국 초기 자산형성지원사업(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정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주거환경정비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에서도 재정관리, 교육에 대한 태도, 중등과정 이후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raden et al, 2016). 영국 역시 미국 개인발달계좌의 영향을 받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Saving Gateway가 실시되었는데,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등 근로

연령 저소득가구가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을 실시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칭율이 높을수록, 월저축 목표액이 높을수록, 저축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재정교육시간이 많을수록 저축액이 많아지는 결과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미국의 IDA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외국(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행과정 효율화 및 제도의 성과보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설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최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설계가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과정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장기적인 성과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통장참여 독려를 위한 사례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설계상 통장가입유지(3년 이상)에 맞춘 안내에 그치고 있어 통장사업의 정확한 효과요인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미혼일수록, 아동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저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요인이 가장 높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 눈 여겨 볼만한 결과는 공공부조대상자인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김혜연 2014). 그리고 동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효과로서는 재정교육, 재무컨설팅 만족도가 저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참여자는 금융태도에 있어서도 만기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지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참여자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비수급자에게 금융교육에 대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국적으로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종료 이후에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거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인식변화를 갖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이순성, 2014).

동시에 본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삶의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권지성, 2015; 서종녀, 2015). 이러한 결과들은 통계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중장기적 효과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저축을 통한 물질 자산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 의지 및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사례관리지원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탈빈곤 및 탈수급을 위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 내로 편입되어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자산형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유인책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인 빈곤탈출 촉진의 성과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득보장정책 중심의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였으나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더 높았다. 저소득층 및 빈곤층에게는 큰 도움이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전달체계 재구축 등 정부의 복지행정에 들어가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까지 확대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상대적으로 높은 탈수급적 성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자립경로로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요인,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인 제도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지, 참여자 특성파악을 통한 빈곤탈출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지원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요인 및 탈수급 성공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근로의지, 학력, 근로능력, 육체적 건강, 정신건강, 경력단절, 자격증보유), 환경적 특성(공적부조 수급률, 부양가족수, 가족기능)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사회적 자본, 삶의 목적) 중 어떤 요인들이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인 및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인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고,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요인 및 탈수급 성공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나는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정보 및 통장사업 참여관련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 및 가구의 자원수급정보이다. 이처럼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및 그 가구구성원과 참여자의 심리사회적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자산형성지원 참여자의 탈수급에 가구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자료를 통해 자산형성에 가입된 대상자가 참여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자료분석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개인정보 및 적립금액, 매칭금액 등의 정보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중 참여자에 대한 취창업 1:1 맞춤형 취업사례관리 지원사업인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사업 참여자의 가족구성원 정보 및 심리사회적인 정보가 기술된 사업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분석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유인 요인을 밝히기 위해 중앙자활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관리 DB(이하, 희망키움통장사업 자료)중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에 진입되어 있는 참여자 총 251명의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사례관리 정보가 포함된 251 명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 및 년 2회 교육, 사례관리이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이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유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결과 각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족관련 정보가 자산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가족관련 특성은 중앙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DB’에만 관련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자료에서 비교적 자료응답이 충실한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참여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251명 중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86명,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는 165명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의 개인 ID를 희망리본사업 DB와 비교하여 동일한 ID를 찾은 다음, 가족 및 사례관리 정보가 비교적 충실히 입력된 표본을 추출(이하, 희망리본사업 자료)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희망키움통장 I 사업에 참여하면서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를 추출한 결과 최종 1,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23명 중 현재 적립 중인 대상자 34명과 적립완료자(3년 만기) 31명, 그리고 중도지급자(지급기준 충족) 127명을 제외한 성공자(탈수급) 385명과 중도해지자(지급기준 미충족) 646명을 대상으로 총 1,031명이 추출되어 분석에 투입되었다. 다만 이중 결측치를 제외한 취·창업여부가 표시된 대상은 436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3. 주요 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된 주요 요인을 고려한 상황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자료와 희망리본사업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자료는 <표 1>에 제시된 변수와 함께 금융정보와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심층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변수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판정 시 사용되는 근로능력진단표의 측정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⁶⁾ 두 번째 자료는 희망리본서비스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취창업을 위한 참여자 및 가족에 대한 근로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변수들을 구성하였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사업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자료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진단표와 동일한 자료를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가 재설문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통장사업 참여유무(참여=1, 미참여=0), 성별(남=1, 여=2), 연령(2-10점), 근로의지(1-5점), 학력(교육연수), 근로능력(1-5점), 육체적 질병정도(1-15점), 정신적 질병정도(0-10점), 경력단절(0-10점), 자격증보유정도(0-5점), 공적부조 수급률(4-10점), 부양가족현황(0-5점), 가족기능(0-5점), 신용정도(0-5점), 사회적 자본(0-5점), 삶의 목적(0-5점)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참여자가 직접 기술한 정보를 조작화 하였다.

다음으로 희망리본서비스 DB의 참여자는 희망리본서비스에 하루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탈수급 유무(탈수급합=1, 탈수급 못함=0), 취업·창업여부(0=아님, 1=예), 사례관리서비스여부(0=무, 1=유), 장애유무(0=무, 1=유), 질병유무(0=무, 1=유), 주소소득여부(0=무, 1=유), 학력(0=고졸이하, 1=전문대졸이상), 교육훈련활동여부(0=무, 1=유), 구직활동여부(0=무, 1=유), 배우자유무(0=무, 1=유), 기타현물지원 수급여부(0=무, 1=유), 부채여부(0=무, 1=유), 자격증소지여부(0=무, 1=유), 사회서비스여부(0=무, 1=유)로 조작화 하였다.

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자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판정 시 사용하는 근로능력진단표 정보와 참여자의 개인 금융정보가 함께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근로능력진단표 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자체가 근로능력 진단표 정보와 금융정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정보들을 2차 자료(Secondary data)로 활용하였음.

[표 1] 주요 변수

분석목적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분석자료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요인분석	통장사업 참여 유무	근로의지(1-5점척도), 근로능력, 육체적 질병정도, 정신적 질병정도, 경력단절, 자격증보유정도, 공적부조 수급률, 부양가족현황, 가족기능, 신용정도, 사회적 자본(1-5점척도), 삶의 목적(1-5점 척도)	성별, 연령, 학력	희망키움통장 사업 자료
희망키움통장 사업 탈수급 요인 분석	탈수급 유무	취업·창업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3년 이상된 사례관리자 경력 유무)여부, 주소득여부, 교육훈련활동(직종훈련, 선호업무 정보파악 및 능력습득지원 등)여부, 구직활동(구직정보제공, 동행면접, 모의면접, 이력서 작성 지원 등)여부, 배우자유무, 기타현물지원 수급여부, 부채여부, 자격증소지(민간 및 공공 모두 포함)여부, 사회서비스(가정불화, 문화, 법률, 심리정서상담, 신용회복, 의료, 학습, 정보제공 등)여부	장애유무, 질병유무, 학력	희망리본 서비스사업 참여자 DB 매칭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 I 참여자의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요인 및 탈수급 성공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사업 참여유무에 따른 특성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주요 특성비교를 위한 독립표본 티 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희망키움통장사업 탈수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탈수급자와 탈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사업 참여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는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탈수급 성공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요인 분석

1)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비참여자와 참여자 특성 차이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요인요소 분석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 전체 사례관리 대상자 251명 중 통장사업 참여자는 86명, 비참여자는 165명이다. 분석영역 및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근로능력 점수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영역은 크게 개인적·환경적·사회 심리적 요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연령, 학력, 근로능력은 가구의 자산형성구축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각 요소들을 모형화 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실제로 자산형성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적 요소로는 연령, 근로의지, 학력, 근로능력, 질병정도, 경력단절, 자격증보유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 환경적 요소에는 공공부조(현금급여), 가족상황, 신용정도가 있으며, 사회 심리적 요소에는 사회적 요소, 심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근로능력점수 중 취업가능성에 대한 배점(0.5)은 주관적인 의견이라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자의 연령대는 '45세 이상 56세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56세 이상'이 26.7%로 그 다음이었다. 또한 45.1%의 사람들이 근로의지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3%의 사람들이 '8시간 근로가능 및 비장애'일 정도로 근로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현금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최대수령액의 30% 이하'를 받는 사람들이 74.2%로 가장 많았고 '최대수령액의 51% 이상 70%이하' 10.8%, '최대수령액의 31%이상 50%이하' 8.3%, '최대수령액의 71%이상' 6.7%순이었다. 86.5%의 사람들은 본인의 신용정도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또는 파산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답하였다. 심리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분석대상의 51.4%가 삶의 목적이 확고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10%p 가량 낮은 41.4%는 삶의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영역 및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영역	내용	평가기준	근로능력 점수 추정	사례수	비율	
개인적 요소 (60)	연령 (10)	35세 미만	10	19	12.7	
		35세 이상 45세 미만	8	37	24.7	
		45세 이상 56세 미만	6	54	36.0	
		56세 이상	2	40	26.7	
		합계		150	100.0	
	근로의지 (10)	근로에 대한 태도 및 자활사업에 대한 태도		10	65	45.1
				8	20	13.9
				6	42	29.2
				5	-	0.0
				3	9	6.3
				0	8	5.6
		합계		144	100.0	
	학력 (5)	제4직능수준(~대학, 대학원 교육수준)	5	24	15.9	
		제3직능수준(~고등, 기술교육 교육수준)	4	58	38.4	
		제2직능수준(~중등교육교육수준)	3	33	21.9	
		제1직능수준(~초등교육교육수준)	2	36	23.8	
		합계		151	100.0	
	근로능력 (5)	8시간 근로 가능 및 비장애	5	215	90.3	
		4시간 이상 근로 가능	3	20	8.4	
		4시간 미만 근로 가능	0	3	1.3	
		합계		238	100.0	
	질병 정도 (15)	육체 (5)	질병 없음	5	100	66.2
			단기치료(3월 이내)필요 질병	4	4	2.7
장기치료(6월 이내)필요 질병			3	14	9.3	
만성질환(6월 이상)			0	33	21.9	
합계				151	100.0	
정신 (10)			10	53	37.6	
			8	42	29.8	
			6	16	11.4	
			5	5	3.6	
			3	14	9.9	
			0	11	7.8	
		합계		141	100.0	

영역	내용	평가기준	근로능력 점수 추정	사례수	비율	
	경력 단절 (10)	1년 이하	10	48	35.8	
		2~3년	8	24	17.9	
		4~5년	6	6	4.5	
		6년 이상	4	10	7.5	
		경력 없음	0	46	34.3	
		합계		134	100.0	
	자격증 보유 (5)	2개 이상	5	35	14.3	
		1개 이상	4	101	41.4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음	3	9	3.7	
		없음	0	99	40.6	
합계			244	100.0		
환경적 요소 (25)	공적 부조 (현금급여) (10)	최대수령액의0~30%	10	89	74.2	
		최대수령액의31~50%	8	10	8.3	
		최대수령액의51~70%	6	13	10.8	
		최대수령액의71%~	4	8	6.7	
		합계		120	100.0	
	가족 상황 (10)	부양 가족 (5)	장애 요소 없음	5	89	61.4
			서비스 연계시 즉시 해소	4	12	8.3
			부분 돌봄대상 1명 이상	3	25	17.2
			부분 돌봄대상 2명 이상	2	10	6.9
			직접 돌봄대상 1명 이상	1	9	6.2
			합계		145	100.0
		가족 기능 (5)	상	5	44	31.0
			중	3	65	45.8
			하	0	33	23.2
	합계		142	100.0		
신용 정도 (5)	관련 없음	5	122	86.5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필요	3	11	7.8		
	파산필요	0	8	5.7		
	합계		141	100.0		
사회 심리적 요소 (10)	사회적 자본 (5)	상	5	21	15.4	
		중	3	77	56.6	
		하	0	38	27.9	
		합계		136	100.0	
	심리적 요소 (5)	삶의 목적 (5)	상	5	58	41.4
			중	3	72	51.4
			하	0	10	7.1
합계		140	100.0			

2)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유무에 따른 특성 차이 분석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비참여자와 참여자간의 주요한 특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학력을 제외하고는 통장사업 참여자들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로의지, 육체적 질병여부, 경력단절 항목의 점수에 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적 요소에 대한 결과로는 부양가족 및 가족기능 항목의 평균 점수는 동일하게 나타났고, 공적부조(현금급여)와 신용정도의 평균 점수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비교 방법인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회심리적 요소의 경우,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목적 평균 점수 모두 통장사업 참여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통장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통장사업 비참여자			통장사업 참여자			t값
	관측값 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103	5.8	2.8	47	6.1	2.6	-0.6
근로의지	100	7.4	2.8	44	8.0	2.8	-1.35
자활사업에 대한 태도	100	3.5	1.6	44	3.8	1.5	-1.13
학력	104	3.5	1.0	47	3.4	1.0	0.13
근로능력	158	4.7	0.9	80	4.9	0.4	-2.81***
육체적	104	3.5	2.1	47	4.1	1.8	-1.86*
정신적	98	7.2	3.1	43	7.6	3.1	-0.79
경력단절	92	5.3	4.3	42	6.1	4.4	-1.00
자격증보유	161	2.3	2.1	83	2.8	2.0	-1.84*
공적부조(현금급여)	103	8.9	2.0	40	9.3	1.6	-1.34
가족사항(부양가족)	80	4.1	1.3	46	4.1	1.3	0.06
가족사항(가족기능)	99	2.9	1.9	43	2.9	1.8	-0.03
신용정도	99	4.5	1.3	45	4.6	1.1	-0.58
사회적 요소(사회적 자본)	93	2.3	2.0	43	2.8	1.7	-1.52
심리적 요소(삶의 목적)	97	3.4	1.3	43	4.0	1.3	-2.40**

***P<.01, **P<.05, *P<.1

결과적으로 개인적 요소의 경우, 통장사업 참여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유의수준이 5%일 때 근로능력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고, 유의수준이 10%일 때 육체적, 자격증 보유에 대한 평

균 점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장사업 참여들의 근로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고, 육체적 질병이 드물며, 자격증을 더 많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장사업 참여자들과 간에는 유의수준이 5%일 때 삶의 목적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장사업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목적을 어느 정도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4] 통장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평균비교(5점 만점)

구분	근로능력 평균		육체적 평균		자격증보유 평균		삶의목적	
	비참여자	참여자	비참여자	참여자	비참여자	참여자	비참여자	참여자
관측 값 수	158	80	104	47	161	83	158	80
평균	4.7	4.9	3.5	4.1	2.3	2.8	3.4	4.0
표준편차	0.9022	0.3824	2.1225	1.8132	2.125	2.007	1.3912	1.3182
t-값	-2.23***		-1.86*		-1.84*		-2.4**	

***P<.01, **P<.05, *P<.1

3)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유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결과표에 나타난 Model Chi-square값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세 모델 모두 모형 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또한 모델1 보다는 모델2의 Model Chi-square값이, 모델2 보다는 모델3의 Model Chi-square값이 크므로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와 사회심리적 요소 또한 통장사업 참여자 유인 요소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통장사업에 참여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근로능력’이 증가할 때(근로능력이 뛰어날수록) 통장사업 참여 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통장사업 참여 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공적부조(현금급여)’가 증가할 때 통장사업 참여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통장사업 참여 할 가능성이 감소하고 가족기능이 뛰어날수록 통장사업 참여 할 가능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7)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08이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학회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제시하지 못함.

[표 5] 지역 내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유인 요소 분석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β	wald χ^2	S,E	exp(β)	β	wald χ^2	S,E	exp(β)	β	wald χ^2	S,E	exp(β)	
상수	-4.2628	4.0148	2.1275		-8.4095	7.004	3.1776		-9.0912	7.3607	3.3509		
개인적 요소	연령 ⁸⁾	0.0956	1.0083	0.0952	1.1	0.2088	3.3627*	0.1139	1.232	0.2035	3.0611*	0.1163	1.226
	근로 의지	0.0155	0.0327	0.0857	1.016	0.0201	0.0437	0.0962	1.02	-0.0583	0.3095	0.1048	0.943
	학력	-0.7311	6.2195**	0.2932	0.481	-0.9964	8.6942**	0.3379	0.369	-0.9832	8.3731*	0.3398	0.374
	근로 능력	0.6999	2.7782*	0.4199	2.014	0.9078	3.8189*	0.4645	2.479	0.9277	3.8725**	0.4714	2.529
	육체적	0.1416	1.3984	0.1197	1.152	0.2682	3.5005*	0.1433	1.308	0.2451	2.704	0.1491	1.278
	정신적	0.0289	0.1689	0.0703	1.029	0.0223	0.0718	0.0832	1.023	0.00069	0.0001	0.0690	1.001
	경력 단절	0.0415	0.6542	0.0513	1.042	0.0984	2.8171*	0.0586	1.103	0.0754	1.5303	0.0610	1.078
	자격증 보유	0.3236	5.5147**	0.1378	1.382	0.3334	4.8467**	0.1514	1.396	0.3133	4.1288**	0.1542	1.368
환경적 요소	공적 부조					0.3022	3.8867**	0.1533	1.353	0.3204	3.7796*	0.1648	1.378
	가족 사항 (부양가족)					0.1247	0.3603	0.2077	1.133	0.1526	0.5038	0.2150	1.165
	가족 사항 (가족기능)					-0.1542	1.1386	0.1445	0.857	-0.2983	3.0371*	0.1712	0.742
	신용 정도					-0.055	0.0478	0.2516	0.946	-0.0319	0.0151	0.2596	0.969
사회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0.114	0.373	0.1867	1.121
	심리적 요소									0.3672	2.0027	0.2595	1.444
Model Chi-square	16.6657**				24.5197**				27.8885**				
df	8				12				14				
p-value	0.0338				0.0173				0.0147				

*P<.05, **P<.01

2.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 탈수급 요인 분석

1)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비탈수급자와 탈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탈수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희망리본사업의 서비스 수혜를 받고 탈수급한 참여자를 희망키움통장 I 참여자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이 되는 대상가구에 대하여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신청 시기별로 나타내보면 성공(탈수급)인원은 385명, 중도해지(지급기준 미충족) 646명으로 1,031명)을 사용하였다.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을 모두 참여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7.8%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구간이 4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6세 이상이 26.5%, 35세 이상 45세 미만이 17.3%, 35세 미만이 11.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33.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이 33.3%, 중학교가 10.9%, 4년제 대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유형의 경우 한부모가구가 5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일반가구(부부와 자녀) 21.9%,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 0.6%로 나타났다. 결혼경험은 있는 대상자는 81.8%였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가 65.8%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는 82.1%였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94.5%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51.3%, 부채가 없는 경우는 81.4%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인 경우가 26.7%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3.8%, 다세대주택이 19.4%, 단독주택이 19.0%, 연립주택이 11.2%로 나타났다. 주거소유 형태는 기타가 32.7%, 월세가 31.8%, 영구임대가 16.1%, 전세가 14.0%, 자가가 5.4%로 나타났다.

[표 6]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모두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수	참여자비율
성별	남성	332	32.2
	여성	699	67.8
연령	35세 미만	121	11.7
	35세 이상 45세 미만	178	17.3
	45세 이상 55세 미만	459	44.5
	56세 이상	273	26.5

8) 연령변수의 경우, 원데이터가 근로능력평가 상의 점수로 되어 있어 경향성 확인은 가능하나 실제 연령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9) 희망키움통장 I (3년 만기 후 성공)과 희망리본사업(1년) 진행의 차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추출에 한계가 있으며 '15년에 발생하는 만기 탈수급(성공)자 매칭 결과 자료 활용 미승인으로 인해 일부 시기에 대한 제한적 분석 결과를 제시함.

	구분	참여자수	참여자비율
학력	무학	3	0.3
	초등학교	43	4.2
	중학교	112	10.9
	고등학교	344	33.4
	전문대학	343	33.3
	4년제대학	95	9.2
	대학원이상	60	5.8
	기타	31	3.0
세대유형	일반가구(부부&자녀)	226	21.9
	한부모가구	575	55.8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6	0.6
	기타	224	21.7
결혼경험여부	없음	188	18.2
	있음	843	81.8
질병여부	질병없음	353	34.2
	질병있음	678	65.8
교육훈련노력여부	교육훈련노력안함	846	82.1
	교육훈련노력시도	185	17.9
구직활동여부	구직활동안함	57	5.5
	구직활동함	974	94.5
정부지원여부	정부지원없음	502	48.7
	정부지원있음	529	51.3
부채여부	부채없음	839	81.4
	부채있음	192	18.6
주거형태	다세대주택	200	19.4
	단독주택	196	19.0
	연립주택	115	11.2
	아파트	275	26.7
	기타	245	23.8
주거소유	월세	328	31.8
	전세	144	14.0
	영구임대	166	16.1
	자가	56	5.4
	기타	337	32.7
총합계		1,031	100.0

2)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 유형에 따른 주요 특성 차이분석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모두 참여자 중 탈수급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교차빈도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들은 취·창업 성공 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 건강정도, 주 소득원 여부, 학력, 교육훈련활동 여부, 현재 배우자 유무, 부채여부, 자격증유무, 사회서비스 여부이다. 분석결과, 통장사업에서 성공적으로 탈수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3년 이상, 교육훈련 경험이 많고, 자격증이 있고,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I 서비스에서 사례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인적자본 측면에서 일반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통장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각적인 사례관리는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학력이 높거나 건강한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사업 참여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더 일찍 통장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금 더 시계열적으로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겠지만, 학력수준이 높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또는 기존에 사업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이탈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 유형에 따른 주요 특성 차이 분석

구분		대상자 구분			χ^2
		성공 (탈수급)	중도해지 (지급기준미충족)	총합	
취·창업 성공 여부	비 취·창업 ¹⁰⁾	184(67.2)	713(94.2)	897(87.0)	86.4583**
	취·창업	90(32.8)	44(5.8)	134(13.0)	
합계		274(100.0)	757(100.0)	1031(100.0)	
사례관리 전문성	3년 미만	27(7.0)	149(23.1)	176(17.1)	43.9069**
	3년 이상	358(93.0)	497(76.9)	855(82.9)	
합계		385(100.0)	646(100.0)	1031(100.0)	
건강정도	건강하지 못함	146(37.9)	207(32.0)	353(34.2)	3.7027*
	건강함	239(62.1)	439(68.0)	678(65.8)	
합계		385(100.0)	646(100.0)	1031(100.0)	
주 소득원 여부	자녀 없음	57(14.8)	167(25.9)	224(21.7)	17.3084**
	자녀 있음	328(85.2)	479(74.1)	807(78.3)	
합계		385(100.0)	646(100.0)	1031(100.0)	

구분		대상자 구분			χ^2
		성공 (탈수급)	중도해지 (지급기준미충족)	총합	
학력	고졸이하	250(66.1)	252(40.5)	502(50.2)	61.7465**
	전문대졸이상	128(33.9)	370(59.5)	498(49.8)	
합계		378(100.0)	622(100.0)	1000(100.0)	
교육훈련 활동여부	비 활동	289(75.1)	557(86.2)	846(82.1)	20.3977**
	활동	96(24.9)	89(13.8)	185(17.9)	
합계		385(100.0)	646(100.0)	1031(100.0)	
배우자 유무	무배우	217(68.5)	366(76.3)	583(73.1)	5.9073**
	유배우	100(31.5)	114(23.8)	214(26.9)	
합계		317(100.0)	480(100.0)	797(100.0)	
부채여부	부채 없음	374(97.1)	588(91.0)	962(93.3)	14.4743**
	부채 있음	11(2.9)	58(9.0)	69(6.7)	
합계		385(100.0)	646(100.0)	1031(100.0)	
자격증유무	자격증 미소지	276(71.7)	591(91.5)	867(84.1)	70.684**
	자격증 소지	109(28.3)	55(8.5)	164(15.9)	
합계		385(100.0)	646(100.0)	1031(100.0)	
사회서비스 여부	해당 없음	261(67.8)	586(90.7)	847(82.2)	86.4321**
	사회서비스	124(32.2)	60(9.3)	184(17.8)	
합계		385(100.0)	646(100.0)	1031(100.0)	

*P<.05, **P<.01

3)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모두 참여자의 탈수급 요인 분석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결과표에 나타난 Model Chi-square값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델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에는 주소소득여부, 질병유무, 학력, 자격증소지여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주소소득원인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탈수급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가구의 주소소득원은 가구원에 대한 경제적 책임자로서의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이

10) 자활사업에서의 탈빈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취·창업자로 자활 기업 및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분석에 포함된 전체 취·창업자의 수는 134명으로 전체표본의 12.9%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머지 897명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함. 전체 표본에서 취·창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긴하나, 본 연구에서 취·창업여부는 자산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자산형성이 곧 목돈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곧 주거, 창업비용 등 다양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음.

프로그램에서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학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중도해지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력이 높은 사람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으로 탈수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자본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으로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자격증과 같은 인적자본 요인들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없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요인 중에서는 배우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탈수급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심리적·가구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본 사업에서 중도포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의 사례관리자는 단순한 행정적인 사례관리를 벗어나 좀 더 심도 있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등에서도 제도적·행정적으로 심도 깊은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프로그램 요인 관련해서 본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타 현물지원이 있는 참여자가 경우 없는 참여자보다 탈수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현물(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서비스, 지자체복지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분석결과에 대해 행정정보의 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한 한계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를 통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탈수급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현수 외(2013)에서 참여자 설문을 통해 분석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움정도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동일하다.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유지 및 관리 측면과 탈수급 후 미래계획에서 사례관리의 전반적인 도움정도에 대하여 참

여자들 중 약 90% 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각 참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된다면 이들의 경제적 자립 및 탈수급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¹¹⁾

[표 8]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모든 참여자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β	wald χ^2	S.E.	$\exp(\beta)$
상수		-1.9447	15.1148	0.5002	
개인적 요인	주 소득원 여부	0.4778*	3.5843	0.2524	1.613
	장애유무(무)	0.2996	0.8467	0.3256	1.349
	질병유무(무)	0.5301**	7.489	0.1937	1.699
	학력(전문대졸 이상)	-0.3363*	3.3047	0.1850	0.714
	자격증소지여부(무)	0.4731*	3.4858	0.2534	1.605
	구직활동여부(무)	-0.0648	0.0364	0.3396	0.937
가족 요인	배우자유무(무)	0.3601*	3.7817	0.1852	1.434
	부채여부(무)	-0.3249	0.8027	0.3626	0.723
프로 그램 요인	취·창업 여부	1.238**	25.1443	0.2469	3.449
	교육훈련활동여부(무)	0.3003	1.9496	0.2151	1.35
	기타 현물지원 유무(무)	-0.6447**	13.0237	0.1786	0.525
	사례관리서비스전문성(무)	0.7092**	6.7789	0.2724	2.032
	사회서비스여부(무)	0.4298*	2.8401	0.2550	1.537
Model Chi-square		156.9569**			
df		13			
p-value		<.0001			

*P<.05, **P<.01

11) 이와 관련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이나 사례관리가 탈수급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빈곤자임을 고려한다면, 낮은 인적자본 및 심리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함. 특히 최근에 자활사업의 중요한 화두는 사례관리로,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위치에 처한 참여자에 대한 총체적인 사례관리 지원은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리 및 인과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수급을 받고 있는 참여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 참여요인 및 탈수급 요인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사업의 성과유지를 위한 기초연구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이 갖는 객관적인 성과로서의 탈수급 성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의 적극적인 탈빈곤 요인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자에 대한 범주와 주요 연계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참여자와 매칭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다음,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탈수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I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진 서비스의 중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당초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참여자로 유입되는 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 연령, 자격증은 (+)의 효과를 보인 반면, 학력, 가족기능 등은 (-)의 효과를 보였다. 비록 일부 특정지역이지만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참여자는 외적 제반여건 보다는 적극적인 자립의지가 높은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양적 성과지표인 탈수급의 성과 대상자에 대해 전국데이터로 변환해 본 결과 현물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질병에 의하여 다소 건강하지 않은 대상들에게는 참여계기를 만들어 주고, 낮은 학력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취·창업 지원 사례관리를 결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희망리본사업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격증 취득,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의 노력이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향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근로소득 기준을 60%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최소기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력이 낮고, 그리고 질병이나 기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 및 가구원수가 많은 대상가구의 적극적인 가입에 대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산형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자산형성정책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은 성과측정의 도구로서 Sherraden(1991)의 일곱 가지 기대효과에 기반한 지표의 개발에 맞추어져 있다.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러

한 성과지표의 구성과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진행된 패널자료와 희망키움통장 I 사업 가입자의 이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산 자료구득을 통해 횡단적·중단적 비교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유사한 저축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선행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의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탈수급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성과요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수급과 탈수급을 반복하는 대상자들이 맞춤형 급여체계 내에서도 자산형성지원을 통하여 탈빈곤 할 수 있으며, 잔여적 관점의 대상 목표를 탈피하는 제도개선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자의 특성과 탈수급 및 성공요인을 일부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재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 설정의 부족하다는 점, 특정지역 대상자를 활용하였다는 점, 정책 추진체계 특성상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간 탈수급이라는 동일한 사업목표와 이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통장참여자, 수행기관에 모두 성과인센티브로 추가 별도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생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식별변수로 활용하였지만 내생성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분석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분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등의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정확하면서도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성과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는 등의 간접비교하는 방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조사를 포함하는 시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별도로 보다 일반화된 결과와 지역단위 사례관리내용을 정리하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대한 패널자료의 확보 등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성민(2008). 노동패널을 통해 본 자산빈곤의 동태성 연구: 자산빈곤 이행가능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구인회 외(2009). 탈수급 및 수급예방을 위한 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지성(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193-218.
- 김성숙(2010). 저소득층 소비자의 생활경제위기와 금융지원제도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6(1). 101-122.
- 김혜연(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 35-59.
- _____ (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127-153.
- 박노옥 외(2013).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본사업 추진 방안. 내부 자료.
- 박노옥(2009).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외국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2017a).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모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4.28.)
- _____ (2017b).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2. 3)
- 서용석(2000). 자산지향적 사회정책: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7(1). 73-107.
- 신동면(2009). 근로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 윤상용 외(2011).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남서울대학교.
- 유태균, 강성민, 정찬미(2014). 중고령자의 자산빈곤특성 및 자산빈곤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5(4). 37-54.
- 이순성(2014). 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순성, 서용화, 김기재(2012).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장기적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 이순호(2012). 사회적약자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21(5). 10-11.
- 이태진 외(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은수, 엄태영(2008). 도시 저소득 계층의 저축실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연구.
- 최현수(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성과 및 확대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현수 외(2013). 2013년 희망키움통장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 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4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ertrand, M., Sendhil, M. & Eldar, S.(2004). A Behavioral-Economics View of Poverty. American

Economic Review. *94(2)*. 419-423.

- Christy, M., Kameri, M. A. & Janet, W. (2009). Arkansas IDA Programs: Examining Asset Retention and Perceptions of Well-Being.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5(1)*. 65-76.
- Johnson, E. & Sherraden, M. S. (2007). From Financial Literacy to Financial Capability among Youth.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4(3)*. 119-145.
- Kim, Y., Lee, M. & Sherraden, M. (2012). Seoul Hope Plus Savings: Asset-Building Program for Low-Income Households in Seoul (third-year collaborative research report), Research Report, Washington University.
- Han, C. K., Sherraden, M. (2009). Attitudes and Saving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0(3)*. 226-236.
- Loibl, C., M., Grinstein-Weiss, M., Zhan, & B. (2010). More than a Penny Saved: Long-Term Change in Havior Among Saving Program Participa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 *44(1)*. 98-126.
- Michael, S. (2016). Asset Building: Toward Inclusive policy. CSD. Washington University
- _____ (1991). *Assets and the Poor*. New York: M. E. Sharpe, Incorporation.
- Sherraden M. (2001). *Asset and Poor: Implication for Individual Account and Social Security*. Invited Testimony to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Social Security, Washington DC.
- _____ (2008). *IDAs and Asset-Buliding Policy: Lessons and Directions*. Working Paper, 08-12. St. 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_____ (2010). *Financial Capability: What is it, and How can it be Creatd?* CSD Working Paper, 10-17.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Sherraden M., Schreiner, M. & Beverly, S. G. (2003). Income, Institutions, and Saving Performa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Acoount. *Economic Developement Quarterly*, *17(1)*. 99-112.

Abstract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Low-Income Asset Program: Focusing on the Hope Kiwoom Account Program

Kwang Guk Se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decide welfare exit in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that targets low-income families. This study used the matched DB of hope ribbon program and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which is collected by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 As a result, the significant factors in welfare exit are main income, health(illness), licensed possession of status, education, marital status,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in-kind support,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service, and social service.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who received proper social services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in the program have more possibility of welfare exit than the participants who did not.

It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 study found the success factors by connecting hope ribbon program and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which has been introduced since 2010 and enlarge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suggestions to improve anty-poverty policy and system in the direction of providing work incentives and facilitating welfare exit and securing continuity of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and the hope ribbon program. Specifically, this paper can be utilized as objective data in establishing a expansion of the hope building account program and suggesting the important issue for the case management in the filed.

Key words: Assets Building Program, Case Management, Hope Building Account, Hope Ribbon service

◆ 2018. 01. 30. 접수 / 2018. 03. 11. 1차수정 / 2018. 03. 23. 게재확정

* Kyoung Hee University